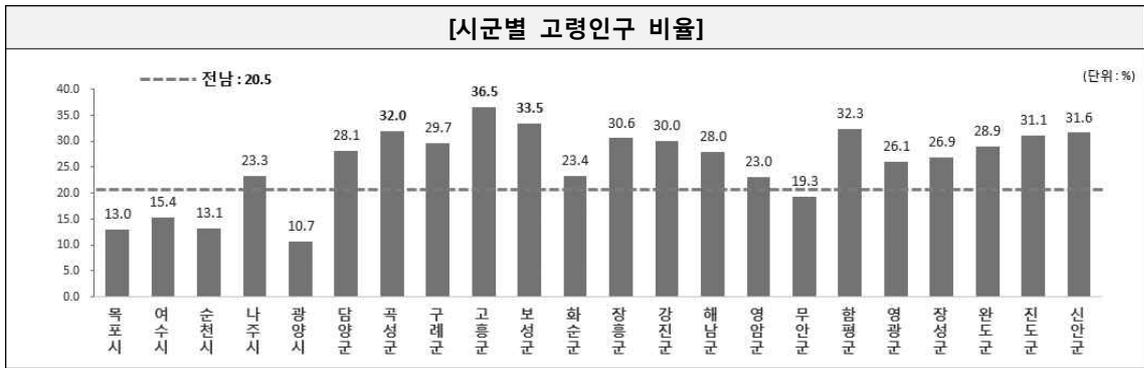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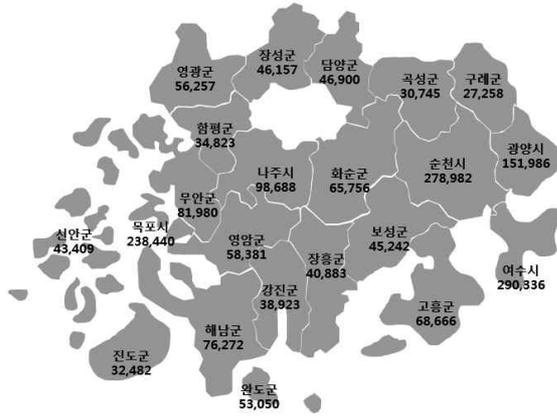


2015년  
전남의 사회지표  
요약

# 1. 인구

- ▶ 2015년 10월말 현재 전남 인구는 1,905,616명으로, 2014년말 대비 164명(△0.01%) 감소함
- ▶ 전남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,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
- ▶ 인구가 가장 많은 시·군은 여수시 (290,336명)로 전남의 15.2%를 차지하며, 인구가 가장 적은 시·군은 구례군(27,258명)으로 전남의 1.4%를 차지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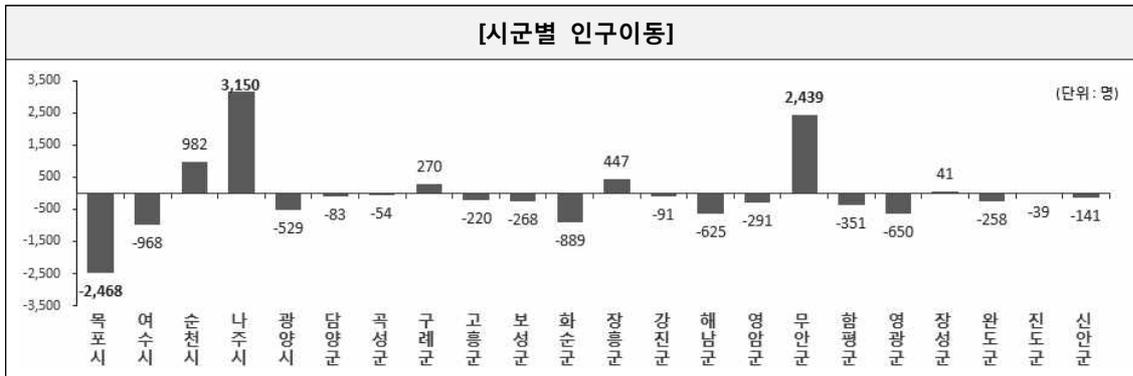
- ▶ 2015년 10월 현재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.5%로 전국의 13.1%보다 7.4%p 높음
- ▶ 2015년 10월 현재 곡성군, 고흥군, 보성군, 장흥군, 강진군, 함평군, 진도군, 신안군의 고령인구는 30%가 넘고, 담양군, 구례군, 해남군, 영광군, 장성군, 완도군도 25% 이상으로 전반적인 군지역의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함
- ▶ 2015년 전남의 유소년부양비는 20.7%이고, 노년부양비는 34.1%로 총부양비는 54.8%임
- ▶ 이는 생산가능인구(15~64세) 100명이 54.8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, 특히 노년부양비의 경우 전남이 34.1명으로, 전국보다 16.2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전남의 인구와 경제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

\* 총부양비=유소년부양비+노년부양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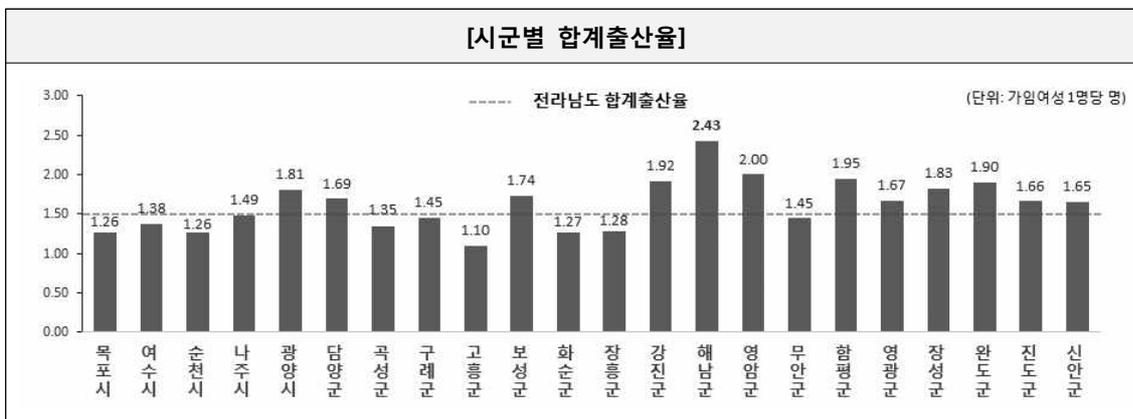
유소년부양비=(0~14세 인구)/(15~64세 인구)\*100, 노년부양비=(65세이상 인구)/(15~64세 인구)\*100

- ▶ 2014년 기준 '타 시도'에서 '전남'으로 전입한 인구는 98,787명이고, '전남'에서 '타 시도'로 전출한 인구는 99,383명으로 △596명의 인구순유출이 발생함

- ▶ 2014년 기준 나주시(3,150명)와 무안군(2,439명)은 인구순유입이 발생한 반면, 목포시(△2,468명)와 여수시(△968명) 등은 인구순유출이 발생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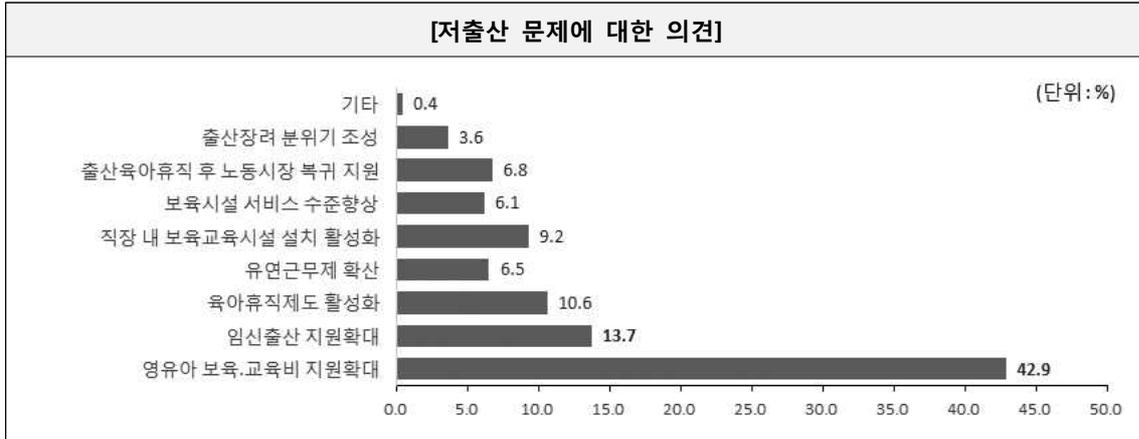
- ▶ 2014년 기준 전남의 출생아 수는 14,817명으로 전년 대비 584명 감소함
- ▶ 2014년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.5명으로 2007년부터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, 2012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음
- ▶ 해남군과 영암군은 2012년부터 합계출산율 전국 1위와 2위를 차지함



## 2. 가구 · 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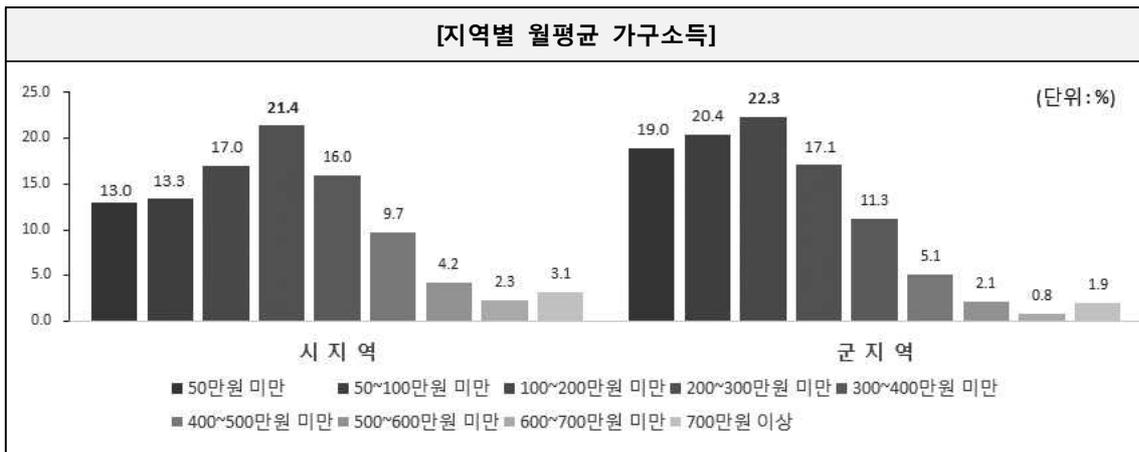
- ▶ 2014년 전남의 혼인건수는 9,357건으로 전년보다 638건(△6.4%) 감소 하였으며,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32.3세로 10년 전 30.2세보다 2.1세, 여성은 29.2세로 10년 전 26.4세보다 2.8세 많아짐
- ▶ 부부 사이 50.7%, 부모자녀 사이 36.3%, 형제자매 사이 30.5%는 하루 평균 '1시간 이상' 대화를 하고 있음
- ▶ 10가구 중 3가구는 분거가족이 있고, 주로 직장파와 학교문제로 분거가족이 발생함

- ▶ 도민 2명 중 1명은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이라고 생각함
- ▶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‘영유아 보육·교육비 지원 확대’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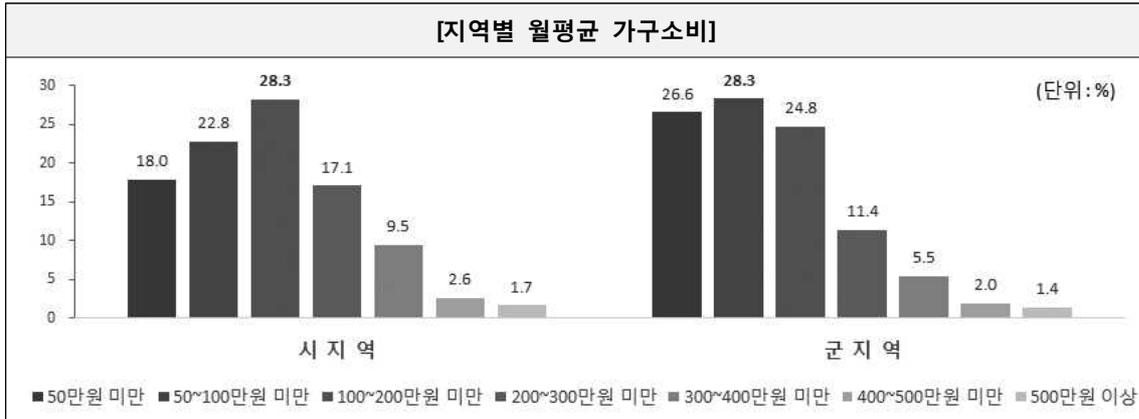
### 3. 소득 · 소비

- ▶ 2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‘200만원 이상’이고, ‘200만원 이하’인 가구는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1.4배 많음
- ▶ 동부권과 서남권의 가구소득이 타 권역보다 높고, 가구주가 30~40대인 가구의 소득이 높음
- ▶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도 높음
- ▶ 4가구 중 3가구는 ‘근로 및 사업소득’이 가구소득의 주 수입원임



- ▶ 4가구 중 2가구는 월평균 가계지출이 100만원 이하이고, 1가구는 200만원 이상임

- ▶ 가구주의 연령이 30~40대인 가구와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은 가구의 가계지출이 더 높음
- ▶ 생활비 중 식료품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많고, 보건의료비, 주거비 순임
- ▶ 여성 가구주는 남성 가구주보다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
- ▶ 식료품비 이외에는 30대 이하 주거비, 40~50대 교육비, 60대 이상은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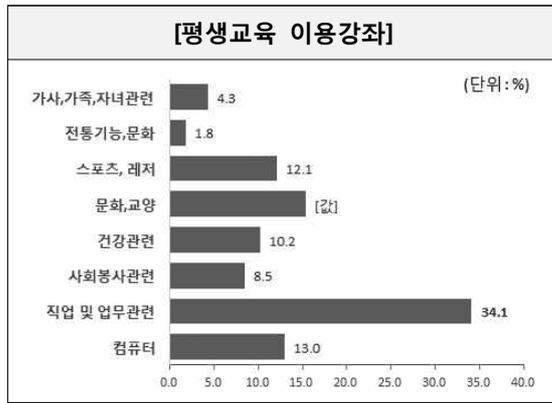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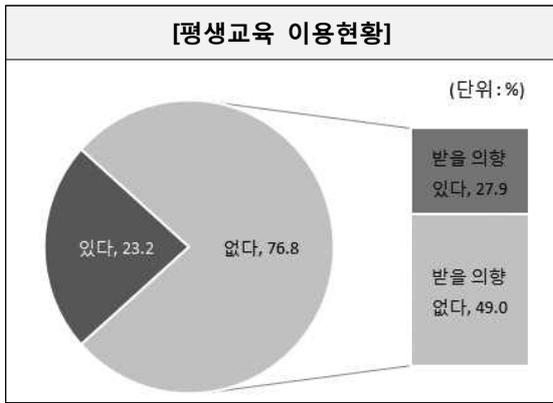


- ▶ 도민은 평소 물건을 구입할 때 대형 슈퍼마켓(하나로마트 등)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, 군지역의 대형 슈퍼마켓 이용률이 매우 높음
- ▶ 광주근교권과 중남부권의 대형 슈퍼마켓 이용률이 타 권역보다 매우 높음
- ▶ 20대 이하는 집근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이용률이 높고, 30대는 대형 할인마트, 40대 이상은 대형 슈퍼마켓 이용률이 높음
- ▶ 60대 이상은 타 연령대보다 대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
- ▶ 도민 10명 중 6명은 월평균 3회 정도 전통시장을 이용하며, 월평균 17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, 중남부권의 월평균 사용금액이 21.2만원으로 가장 높고, 50대 이상이 자주 이용함
- ▶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‘주차시설 확충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며, 30~50대에서 비교적 높음

#### 4.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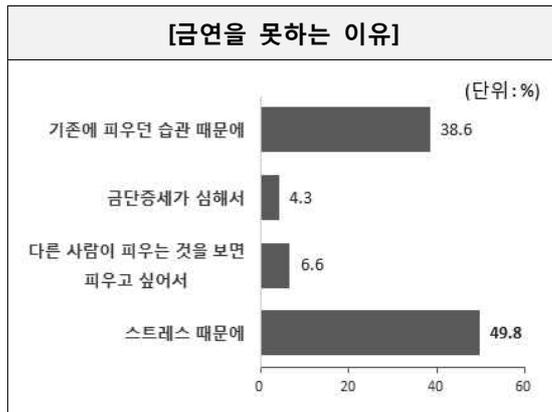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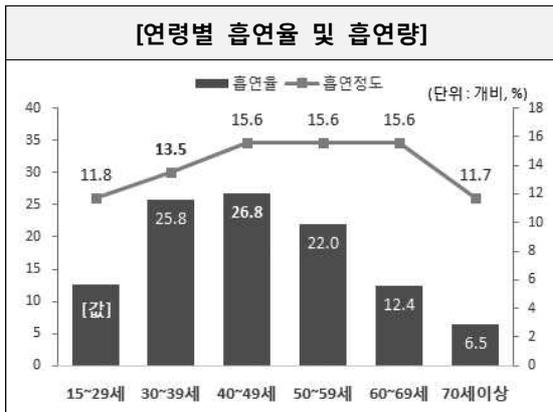
- ▶ 도민 4명중 1명은 평생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,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률도 높음
- ▶ 직업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평생교육이 가장 많고,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률이 높음

- ▶ 향후 받고 싶은 교육으로 40대 이하는 '직무와 스포츠', 50대 이상은 '건강'과 관련된 교육이 상대적으로 높음



## 5. 보건 · 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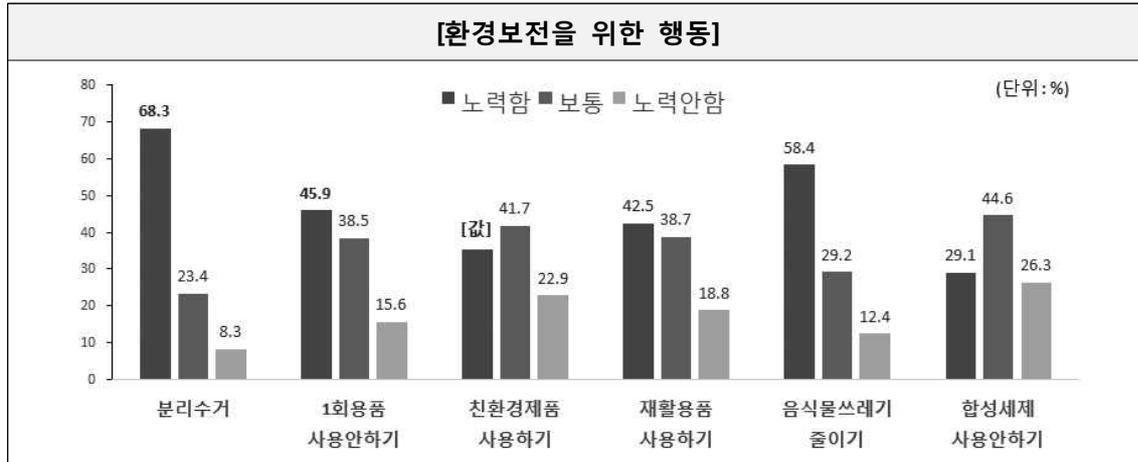
- ▶ 도민 5명 중 1명은 하루 평균 2/3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며,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성 2명 중 1명은 과거에는 흡연을 하였으나 현재는 흡연을 하지 않음
- ▶ 현재 흡연 중인 도민 2명중 1명은 금연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했고, 흡연 중인 도민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기존의 흡연습관 때문에 금연을 하지 못함
- ▶ 50대 이하는 스트레스, 60대 이상은 기존에 피우던 습관이 금연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, 스트레스로 인한 반복된 흡연이 결국 습관으로 이어짐



- ▶ 도민 2명 중 1명은 술을 마시며,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음주율이 높음
- ▶ 술을 마시는 도민 2명중 1명은 주 1회 이상 음주를 하며, 5명중 1명은 주 3회 이상 음주를 함

- ▶ 금주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으로 나타남
- ▶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의료검진 등을 통한 예방사업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·보급, 공원 및 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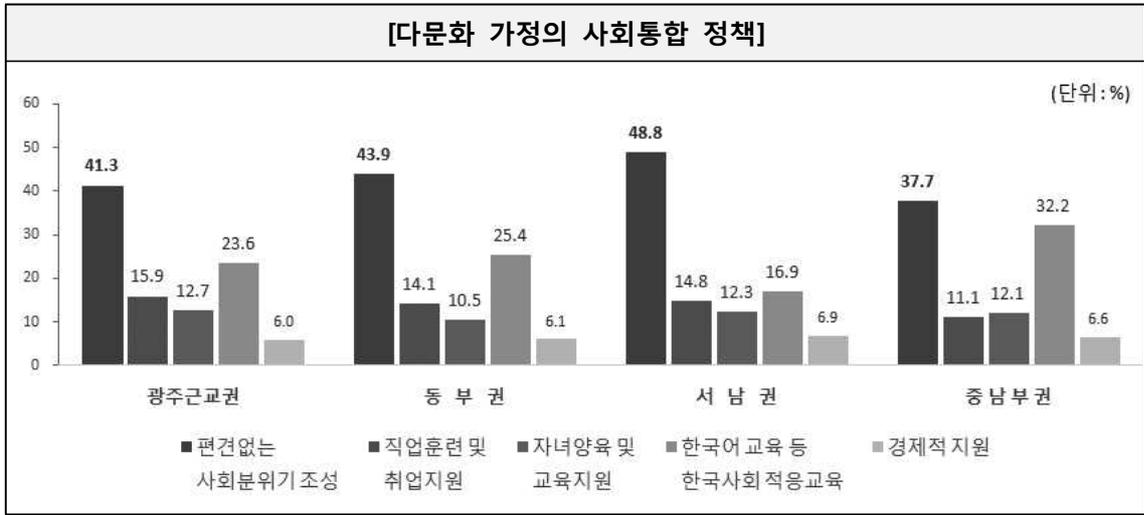
## 6. 환경



- ▶ 도민은 평소 환경보전을 위해 분리수거를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노력하지만, 대체재가 부족한 합성세제 사용은 줄이지 못함
- ▶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함

## 7. 사회·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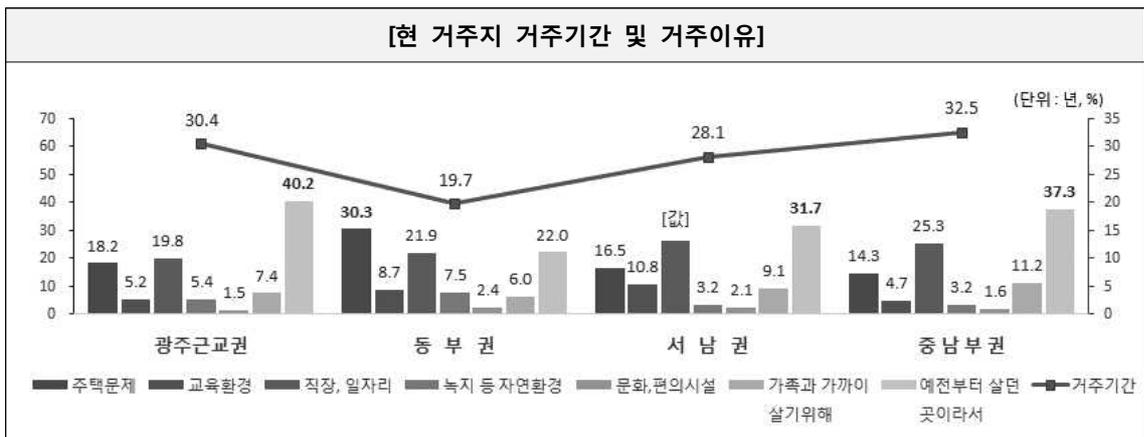
- ▶ 도민은 향후 문화생활공간, 보건·의료시설, 사회복지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
- ▶ 40대 미만은 문화생활공간, 50대 이상은 보건·의료시설과 사회·복지시설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
- ▶ 도민은 향후 건강관리 및 증진, 노인돌봄,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
- ▶ 도민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함



- ▶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고, 건강문제는 2년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▶ 향후 본인의 장례는 묘지 등에 매장하는 것보다는 화장하는 것을 더 선호함
- ▶ 향후 본인의 장례에 대해 나이가 많을수록 묘지 등에 매장하는 것을 더 선호하나, 2년 전보다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함

## 8. 주거·교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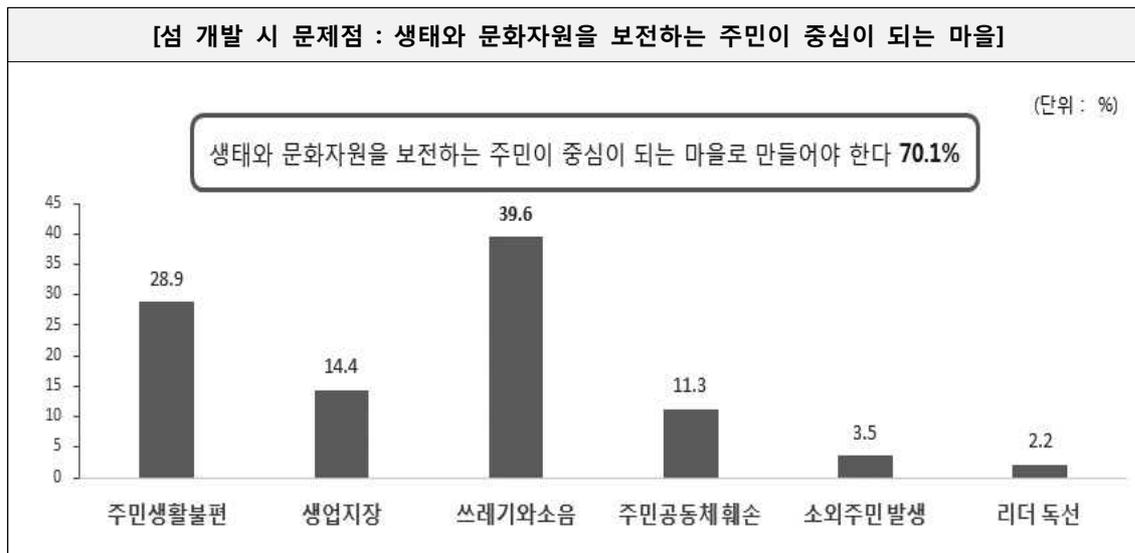
- ▶ 현 거주지의 평균 거주기간은 25.7년으로 예전부터 계속 살아온 경우가 많음
- ▶ 동부권은 타 권역보다 주택문제로 현 거주지에 살고 있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높고, 평균 거주기간은 타 권역보다 짧음
- ▶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여성 가구주보다 직장 때문에 현 거주지에 살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, 거주기간이 더 짧음



- ▶ 4가구 중 1가구는 향후 다른 곳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며, 2년 전보다 크게 증가함
- ▶ 시지역의 이주의향이 군지역보다 2배 이상 높고, 동부권이 상대적으로 높음
- ▶ 20대는 직장, 30~40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주의향이 다소 높음
- ▶ 이주의향이 있는 2가구 중 1가구는 도내 이주를 생각하지만, 광주근교권은 타 권역에 비해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음

## 9. 여가·문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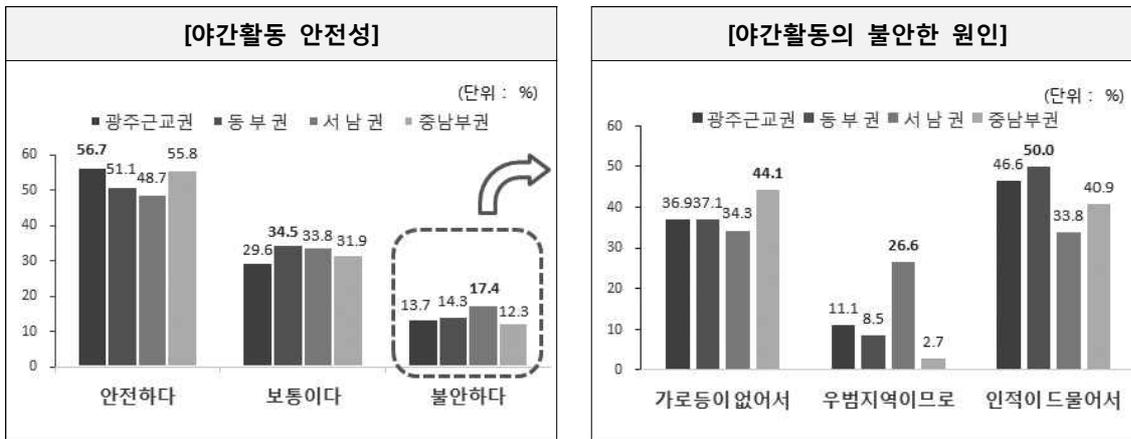
- ▶ 도민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문화·예술·체육활동은 영화감상이 가장 많고, 자연·문화재 탐방과 스포츠 및 레저활동 등으로 나타남
- ▶ 전반적으로 문화·예술·체육활동은 동부권이 타 권역보다 높고,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, 연령이 적을수록 높음
- ▶ 도민의 절반 이상은 도내 관광경험이 있고, 숙박을 할 경우 펜션을 가장 많이 이용함
- ▶ 도내 관광지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 및 풍경감상이고, 실제로도 관광지의 자연과 풍경에 가장 만족함
- ▶ 도내 관광지에 대한 정보는 주로 지인(가족, 친구 등)과 인터넷을 이용해 얻음
- ▶ 연령이 적을수록 인터넷을 이용해 도내 관광지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, 연령이 많을수록 지인들을 통해 정보를 얻음
- ▶ 도민은 ‘가고 싶은 섬’ 가꾸기 사업은 ‘생태와 문화자원을 보전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로 만들어야 한다’고 생각하며, 이 경우 ‘쓰레기와 소음’, ‘주민의 일상생활 불편’ 문제를 가장 우려함



- ▶ 도민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률과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정보검색 및 수집에 가장 많이 활용함
- ▶ 남성의 인터넷 이용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고, 40대 이하의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함
- ▶ 도민 5명중 3명은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, 특히 동부권과 서남권의 평균 독서량이 매우 높음

## 10. 안전

- ▶ 도내 야간활동 시 안전성에 대한 만족도는 2년 전보다 높아짐



- ▶ 야간활동 시 불안함을 느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지역은 ‘인적이 드물어서’, 군지역은 ‘가로등이 없어서’로 나타남
- ▶ 야간활동에 불안함을 느끼는 도민 4명중 2명은 무섭지만 그냥 다니고, 4명 중 1명은 낮에 가거나 다음 기회로 미루는 방법으로 대처함
- ▶ 도민들은 평소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,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‘귀찮아서’가 가장 많음

## 11. 공동체와 사회참여

- ▶ 도민 5명중 4명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고, 실제로도 사용을 하고 있으며, 주로 배송관련과 민원업무에 많이 사용함
- ▶ 도민은 TV를 통해 도정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하며, 특히 연령이 낮은층은 인터넷과 SNS, 연령이 높은층은 TV와 주변사람들을 통해 도정소식을 접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

- ▶ 도민 2명중 1명은 SNS를 이용 중이며, '카카오토크'와 '페이스북'을 가장 많이 사용함
- ▶ 전남의 대표 SNS 중 '카카오토크'와 '페이스북', '블로그'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, 실제로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
- ▶ 전남의 대표 SNS는 '인터넷 포털'과 '친구·지인 등의 소개', 'SNS 이벤트·광고'를 통해 대부분 처음 이용하게 됨
- ▶ 전남 도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은 전년보다 크게 높아짐

